“北 추가 도발하면 경제·외교 더 고립될 것”

한·미·일 외교장관 뉴욕서 회담…공조 논의

6자 수석대표 협의해 구체적 대책 논의키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 수장들이 미국 뉴욕에서 회담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장관은 29일 뉴욕 맨해튼 중심에 있는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만나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회담에서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등에 대한 우려를 같이하고 북한의 도발이 실제로 이뤄지면 강력하게 대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3개국 장관이 회동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회담이 끝난 뒤 윤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최근 이뤄진 일련의 정상급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냈다”면서 “오늘 3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안이 이야기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4일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 달 10일께 로켓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 추석인 27일 평양방송을 통해 로켓 발사가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라고 말해 동북아를 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윤 장관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포함해 국제 사회가 공조해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억지하자는 이야기와, 그래도 북한이 도발한다면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때는 이전보다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안보리 차원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면서 “언제, 어떤 형태로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북한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더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3국 외교장관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해 더욱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윤 장관은 최근 개정된 일본의 안보 법제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했으며, 신방위협력지침과 안보 법제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3국 관계 당국간 실무 협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장관은 “우리의 메시지가 잘 전달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 밖에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보건안보 및 개발협력,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인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정책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예멘 예식장 폭격 131명 사망

가해자 지목 사우디군 “그런적 없다”

28일(현지시간) 예멘 남서부 타이즈 주(州) 해안도시 모카의 한 예식장이 폭격을 받아 민간인 131명이 사망했다고 유엔과 현장 의료진이 29일 밝혔다.

현장 목격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동맹군의 오폭이었다고 주장했다.

사망자 가운데는 여성이 최소 80명을 비롯해 어린이가 다수 포함됐다고 의료진이 전했다. 공습 직후까지만 해도 최소 31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됐으나, 사망자 집계가 진행되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유엔이 이번 폭격에 문제를 제기하자 가해자로 지목된 사우디 군은 29일 “동맹군은 지난 사흘간 모카 지역을 폭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엔 집계에 따르면 사우디 주도의 동맹군이 예멘 반군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3월26일 이후 6개월간 폭격과 교전으로 민간인 2천355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북한 정권 붕괴시 美軍 15만명 증파 필요”

美 ‘랜드연구소’ 보고서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기 위해 미 육군 지상군 15만명이 증파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현 시점에서 북한군이 서울을 향해 포격도발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최근 펴낸 ‘우리에게 필요한 육군 만들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붕괴 시 미국의 지상군은 WMD 제거라는 특수작전에 투입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기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포진한 미군보다 15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40만 명 이내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미 육군의 숫자가 54만5천 명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랜드연구소는 주장했다.

랜드 연구소는 “만일 북한이 전쟁 또는 경제실패로 붕괴될 경우 미국의 가장 큰 우려는 핵무기를 비롯한 WMD를 찾아내고 관리하며 이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한국 군은 서울을 사정권에 둔 북한 포격기지들을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통제하며 인도주의적 재난 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WMD를 제거해야 하는 가장 큰 부담은 미군이 지게된다”고 말했다. 랜드 연구소는 또 북한이 남한의 수도 서울을 향해 무차별 포격도발을 감행하고 상황에 따라 WMD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지상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골리앗’에 맞선 팔레스타인 ‘다윗’ 29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라말라 부근에서 한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돌멩이를 날리려 하고 있다. 이날 서안지구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 군인 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유대인, 무슬림 모두에게 신성한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뒤 양측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4년전 엔진개발대표에 보고”

내부조사서 기술자 증언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가능성과 관련한 경고가 4년전 엔진개발부문 대표까지 보고됐다는 기술자의 증언이 나왔다.

폭스바겐 감독이사회의 한 이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회의 때까지 감독이사회가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폭스바겐의 일부 직원들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범죄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29일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과 관련한 폭스바겐의 내부조사에서 한 기술자는 2011년 당시 하인츠 야콥 노이서 엔진개발부문 대표에게까지 배출가스 불법조작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 기술자는 당시 노이서 대표가 자신의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이서 대표는 지난 23일 사퇴한 마르틴 빈터코른 폴크스바겐 최고경영자 직속인 엔진개발 담당 중역으로 재직하다 최근 다른 관리직 2명과 함께 해임됐다. /연합뉴스

전쟁 범죄 반성 없는 日 아베 유엔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희망”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다는 뜻을 또 피력했다.

아베 총리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지금까지 일본이 기울인 노력을 설명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본은 2차대전 종전 이후 70년 동안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노력을 축적해 왔다”면서 캄보디아, 남수단 등에서 일본이 전개해온 평화유지활동(PKO)을 나열했다. 또 “지금 이 시각에도 남수단에서 일본 자위대 공병부대원들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큰 이바지를 하는데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FDA 품질인증
구운소금 선물세트
소중한 분께 귀한 마음을 전하세요

2호세트 4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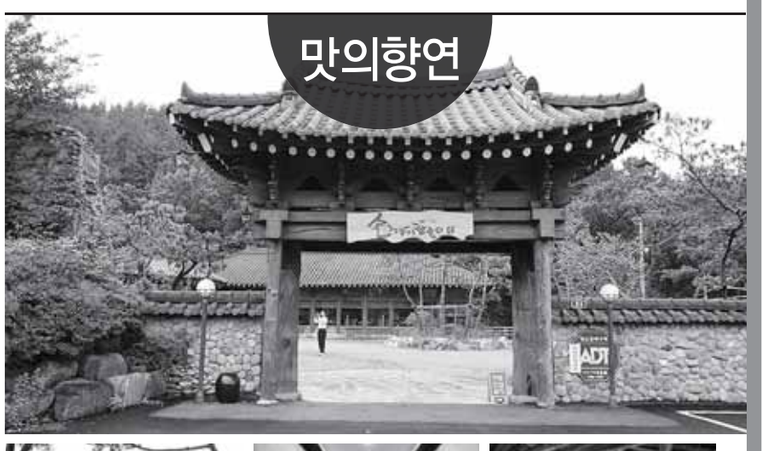
3호세트 40,000원

4호세트 20,000원

상기 세트가격은 소비자가격(택배비제외)입니다.
10세트 이상 선물구입은 전화주시면 공장도 가격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0770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예약 | 황토참숯가마 한우&돼지갈비전문점
주문 | 참숯, 목초액, 구운소금



▶ 불빼는 날 화, 목, 토, 일
▶ 다량의 원적외선과 좌훈으로 힐링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품격있는 모임은 1+ 이상의 한우암소
● 부담없는 외식은 참숯 직화구이 돼지갈비(국내산)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